

평생교육진흥원 소식

제4호 2009년 6월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평생교육진흥원

150-8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 두산인프라코어빌딩 4~7층

TEL: 02-3780-9700 E-mail: nilepr@nile.or.kr

평생교육진흥원 소식

2009년 6월



권두언

대학이 평생학습을 통해 사회와 만나다 / 01



이달의 포커스

한국평생교육학회장 김남선 교수와의 인터뷰 / 02



평생교육진흥원 들여다보기

〈어제는...〉

01. 2009년 제1차 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 운영 / 07
02. 제1차 평생교육정책포럼 개최 / 07
03. 다문화가정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선정결과 / 08
04. 3차년도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운영사업 전문가 컨설팅 실시 / 08
05. 2009년 성인문해교육 관계자 직무연수 개최 / 09
06. 2차년도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현황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09
07.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6기) 위촉 및 위촉식 안내 / 10

〈오늘과 내일〉

08. 2차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설명회 개최 / 10
09. 전국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동아리 사례발표 경진 대회 운영 / 11
10. 2009년 학점은행제 학습과목단위(출석, 원격) 평가 인정 실시 / 12
11. 2009년 평생교육사 1, 2급 승급과정 운영 / 13
12. 2009년 제2차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연수협의회 개최 / 13
13. 학점은행제 8월 학위수여자 학위신청 및 3/4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신청 안내 / 14

14. 2009년 독학학위제 2단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발표안내 / 16



이달의 평생학습인

끊임없는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한 자기능력개발과 고난극복 성공사례 / 17



평생교육기관 탐방

영국의 노르위치 학습 상점 / 20



우수 프로그램 보따리

미국의 학습동아리 사례 / 22



평생교육 정책동향

대학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 / 24
제1차 평생교육정책포럼 토론 요지 / 42



전국은 평생학습중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준비 현황 / 45
지방자치단체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 관련 조례 제정 / 47
창원시, IAEC(국제 교육도시연합) 아·태 네트워크 결성식 개최 / 48
학회소식 / 48



평생교육 책갈피

석·박사 학위논문 현황(2009 전기) / 50



알리는 말씀 / 51



평생교육진흥원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대학이 평생학습을 통해 사회와 만나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진동섭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크게 두 개의 다른 변화 요구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최근의 세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다시금 고용문제와 함께 사회계층간 양극화 문제의 해결이 사회의 핵심 이슈가 됨에 따라, 대학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인의 계속교육과 재교육 등의 역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교육의 경쟁력 저하와 학령기 인원의 급감 예측에 따라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향후 한국 대학의 역할과 변화 방향을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대학은 대학교육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와 학령기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학령기 학생 위주로 어렵지 않게 확대일로의 길을 걸어 왔다. 그 과정에서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라는 사회적 요구는 부차적으로 다루어졌고, 대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비판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 대학은 점차 생존이 걸린 변화 요구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고 궁극통이라 하지 않았던가. 대학이 당면한 위기를 직시하고 사회의 변화 요구에 진정으로 귀기울여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길은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대학이 적극적으로 평생학습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세계 대학 발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대학이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대학의 문을 개방해 성인 등 다양한 학생층을 수용했던 ‘대학확장운동시기’가 가장 역동적인 발전의 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당시 영국에서 가장 전통적인 대학이었던 캠브리지, 옥스퍼드가 앞장섰고, 미국에서는 위스콘신대 등 주립대들이 주도하였다. 이러한 대학개방은 대학으로 하여금 사회와 소통하도록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다양한 학생층은 다양한 사회의 요구를 대학으로 가져와 대학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고, 새로운 학생층에 적합한 교수방법을 개발해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들 대학이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다양한 학문과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높은 성과를 올리는 것은 이러한 대학개방의 전통에 힘입은 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의 변화가 대학만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다. 대학 교수 일부의 헌신적 노력이 대학의 성인(계속교육)학부 등의 구조적 변화로 뿌리내리기까지는 정부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크게 역할을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은 대학충원률을 채워야 하는 지방대학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적 시각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평생학습이 대학의 부족한 학생수를 채우는 방편에 머무른다면, 평생학습이 대학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학의 역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보다 다양한 대학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중심대학은 연구를 통해 그리고 교육중심대학은 교육을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의 평생학습 요구와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이 평생학습을 통해 사회와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의 수준을 더욱 높이고 산업계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한국평생교육학회장 김남선 교수와의 인터뷰

Q 평생교육학회에 대한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평생교육학회회장으로서 학회의 역할과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일단 학회라는 것이 학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구성원들 간에 학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학회라고 봅니다. 학회성격을 구별해보면 기초과학을 중시하는 학회가 있고 응용과 실천이 중시되는 학회가 있는데 평생교육학회는 실천과 연계해야하는 학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학회가 걸어온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25대 회장인데, 그동안 선배분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애정과 학문적 개발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과 같이 평생교육이 발전되었고, 이제 평생교육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천분야 개념보다 학문적 개념 위주로 학회를 운영했습니다. 즉 안드라고지 및 성인교육학이라는 것이 있고 국제적인 동향이 이렇다라고 보여주었다면, 1982년 사회교육법이 만들어지고 1999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2000년부터 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면서 평생교육에 관련된 학자들도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평생교육학회의 역할은 과거의 역할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생교육학에 대한 아카데미한 접근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학회는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어떻게 잘 조화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현장과 연구실과의 관계를 유기적 관계, 의미 있는 관계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로 초점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변화가 왔다고 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사회가 학습사회로 변모하게 되었고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점점 더 증대되었으나 기존의 교육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평생교육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모델 개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회의 본질은 학문 분야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가는 역할이 실천분야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과 학문이론 분야는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론을 중요시하면서 현장과 연계를 이루는 응용 사회과학분야로서의 길은 제가 취임할 때 말하여왔던 바입니다. 현장과 연계된 학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사회적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남은 1년 동안 제가 더 박차를 가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강조할 것은 지금까지 학회 구성원의 참여라든가 학회활동이 수도권 중심으로 해왔는데, 평생교육은 중앙에서 해오는 것도 있지만 실제 현장이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학자 및 현장으로 활동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평생교육정책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교수님은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회의 평생직업교육분과 위원장을 겸임하고 계신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정책에 대해 평가를 해주실 수 있는지요?

A 사실 평생교육도 하나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평생교육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개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책임져야 하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을 헌법에 명시할 정도로 나름대로 공공성을 지니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회교육법이 1999년도에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고, 2000년에 공포 시행되면서부터 평생교육 관련 부서들이 생겨나고 관련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현 이명박 정부에만 국한하여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그 전의 정부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시절부터 평생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발맞춰서 사회에서 정보를 접하지 못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전체 세계 질서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개인의 지식수준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시스템도 과거에는 학교교육에 90%를 포커스 맞춰왔다면, 그 당시 교육부는 학교교육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교육의 대상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교육부도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범교육적 차원의 개념으로 정부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노무현정부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같은 정책사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설립되었고,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군·구 평생학습관이 설립되었으며, 그 후에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통해서 지자체가 평생학습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과연 평생교육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해오면서 제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서 느낀 것은 과거에 평생교육에 대한 관점이 인적자원개발이라던가, 직업 쪽에 관련된 것이라던가, 보편적인 평생교육을 펼쳤다면 현정부에 들어와서는 보편적 평생교육에서 생산적인 평생교육으로 넘어가려는 것으로 노력하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업교육이라던가, 평생교육소외계층도 있는데 이러한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에 참여해서 그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산적인 측면의 평생교육을 강조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을 보면, 사실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상당히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놓다보니 옮겨온 사람들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몰라 방향이 변한 것인데, 제가 관료들과 만나보니까 생산적 평생교육으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이주민들과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 등을 여성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할 것 없이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그 돈이 남아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생산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공짜로 수당까지 주니까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펴는데 있어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파악 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념적 정책, 목적적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산만 낭비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젠다 선정과 과제 선정 과정을 오픈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론을 들어보고 현장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각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나 지방학교의 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정책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Q 평생교육이야말로 정책집행에서 현장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책이 직접 미치는 현장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시장과 지자체장이 선거에 따라 교체되면서 지역의 평생교육이 축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진짜 평생교육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평생학습을 이끌어 갈 리더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지금 양성하고 있잖아요. 마을 리더를 양성하고, 사실 그것은 제가 제안한 것인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지역의 평생학습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례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것이 국가적으로 가장 큰 조직이 될 것입니다. 지역 바탕으로 조직이 되고, 시·도 단위의 조직이 되고, 2·3년 후에는 국가적인 단위에서 약 1만 명 정도의 리더가 양성되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후원세력이 되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마을별 공식적인 리더가 있는데, 개별 리더십을 발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핀란드의 사례를 보았어요. 프리랜서처럼 어디 소속되지 않고, 이 마을 가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저 마을 가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1989년에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지역의 사례를 마을 리더들이 발표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고정된 마을 리더가 아니고 자유롭게 마을 단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과 평가까지 해주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가 잘 살게 해주고 그 나라의 지적 수준을 높여주는 하나의 추진체가 되었습니다.

Q 현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단위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도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평생교육의 활성화와 대학의 역할에 대해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국가의 정책, 지역의 역할, 대학의 역할은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역할과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 중심대학의 역할이 현재는 양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생학습 중심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평생교육진흥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평생학습도시가 기초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으나, 광역지자체와 연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정책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봅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은 우리나라의 고유 모델입니다. 외국은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하여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그 대학을 오고가면서 공부하며 직업교육을 받는 시스템으로 조그마한 대학인 전문대학에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학습 중심대학은 용어부터가 다릅니다. 중심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권역별 거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학 중에 평생교육을 끌어갈 대학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정책인데, 정책 초기라 그런

지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이 무엇인가, 이 개념에 대해 잘 이해하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권역을 주면 여러 지자체와 네트워크를 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대학 하나를 선택하면 바로 옆 지자체와는 상관이 없어요. 컨소시엄이 인근 구나 시와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이 A라는 시 또는 구 한 군데만 선택하면 둘 관계는 학습관계 네트워크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평생학습 중심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권역을 주고 중심대학을 주었는데,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면 20개 중 나머지 19개의 지자체는 의미가 없게 된다 이말이죠. 평생학습 중심대학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나, 제가 볼 때 권역 전체를 커버하는 개념으로 가야하는데 한 지자체의 평생교육만 커버하는 역할로 가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는데 이 시행착오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도 진흥원과 평생학습 중심대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할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역할에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기반이자 하나의 인프라입니다. 초창기에는 2001년부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육청 산하에 있었지만 교육감이 지정해서 네트워크를 잘 해놓았습니다. 현재의 형태대로라면, 성격이 다른 기관들이 모이게 되면서 지자체, 대학, 그리고 교육청 산하 시·군·구의 교육감이 지정한 학습관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이 지정하는 학습관, 시·도 진흥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평생학습 중심대학이 들어오는데, 이들을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과제가 될 것입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이 지역의 성인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도 잘 구축해 나가면서 시스템을 발전시키면 평생학습 진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Q 우리나라 평생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두 축이 평생교육학회와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회장으로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바라는 바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평생교육학회와 평생교육진흥원 간의 관계인데, 사실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해 2월 15일에 개원이 되어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물론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일에 노하우 등은 있었겠지만, 평생교육진흥원 하나로 보았을 때는 1년 동안 한 일이 아주 많습니다. 많이 해왔어요. 구성원들이 역동적으로 일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냈고, 학회에 관련한 학자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평가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현재의 평생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 관계자 및 국가의 관심을 비교한다면,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전략도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는 평생교육진흥원은 소위 진흥원중심이라던가, 행정기관화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나라는 식의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질 때 진흥원과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보지 말고, 수평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학회의 학자와 여러 평생교육기관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평생교육이 학교교육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고, 평생교육은 자율과 학습자의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교육과는 전략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연

구기능을 강화하고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관심을 좀 더 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분담과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입니다. 업무협조를 시·도와도 해야겠지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생교육을 진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회와의 관계인데, 파트너십을 위해서 상호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일이 학회만 챙길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나, 적어도 우리나라 평생교육을 이끌어가는 것은 진흥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평생교육에 대한 전체 분위기는 학자들이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하고 상호 보완하여 역할분담을 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일 시 : 2009. 5. 22. 17:00 ~ 18:00

장 소 :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인터뷰 진행 : 평생교육진흥원 대외협력팀장 최일선

01. 2009년 제1차 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 운영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새롭게 문해교육 관련 조항이 마련되면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가 초등, 중학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은 해당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며,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양성한 문해교육교원이 진행한다.

평생교육진흥원은 2008년에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을 ‘기관정영자, 심화, 기본과정’으로 세분화하여 60명을 양성하였다. 2008년에 이어 ‘2009년 제1차 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을 공고를 통해 총 145명의 예비교원을 선발하였다. 지난 5월 11일부터 심화1과정을 시작으로 23일 기본과정으로 총 2주간 107명이 연수를 수료하였다. 심화2, 3과정은 8월에 연수가 개최될 예정이며, 제2차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은 8월 중에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연수과정 안내는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보망 홈페이지 www.ll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차 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 운영 일정]

연수과정 구분	기	간	장 소	선발 학습자수(명)
심화과정 ①	2009. 5. 11 ~ 13	3일	평생교육진흥원	43
심화과정 ①	2009. 5. 18 ~ 20	3일	평생교육진흥원	42
심화과정 ②	2009. 8. 17 ~ 19	3일	서울국제유스호텔	15
심화과정 ③	2009. 8. 17 ~ 19	3일	서울국제유스호텔	15
기본과정	2009. 5. 14 ~ 16 2009. 5. 21 ~ 23	6일	평생교육진흥원	30

문의 _ 평생교육정책본부 연수문해팀 서영아 · 전승희 ☎ 02-3780-9759~60

02. 제1차 평생교육정책포럼 개최 _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와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

평생교육진흥원은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2009년 평생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그 첫 시간으로 2009년 5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와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를 주제로 제1차 평생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김혁중 광주대학교 총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진동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대전 유성구청장)이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재생과 지역대학의 역할’을, 최운실 아주대학교 교수가 ‘평생교육을 통한 고등교육 수요창출’, 백은순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장이 ‘대학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서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의 주재 하에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 이희수 중앙대학교 교수, 정미경 삼척시 평생학습센터 소장, 채재은 경원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여 패널토론이 이뤄졌다.

기조강연을 통해 김혁중 총장은 “학력사회가 아닌 평생학습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학과 정부, 기업 등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성인중심 대학으로의 유도, 다양한 성인학습자 입학제도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최운실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대학평생교육원은 부설 교육기관이 아니라, 전 대학 구성체가 평생교육적 이념 하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학 평생교육시스템을 구동”시켜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백은순 본부장은 ‘성인학습자 개방형 고등교육제도와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대학관계자 100여명을 비롯하여 학계전문가, 전국의 교육청 및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현재 고등교육의 위기와 대학 평생교육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지역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서의 대학 재구조화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문의_경영기획실 전략기획팀 김세화 ☎ 02-3780-9713

03. 다문화가정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선정결과

평생교육진흥원과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2009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사업’의 세 부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6개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 다문화관련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관의 추천서를 요청하여, 총 11개의 추천서를 받았다. 5월 중에 11개의 추천된 기관 중 최종 2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에는 프로그램 개발·시범운영에 필요한 연구활동비, 자료수집비, 강사비, 교재비 등 한 기관당 1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선정된 기관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선정기관 현황]

연번	지역	기관명	기관대표	담당자	기관전화
1	서울	(사)나섬공동체	유 해 근	이 강 애	02-3437-7078
				이 혜 정	
2	전북	진안군청소년지원센터	우 시 업	김 기 순	063-433-2377

문의_평생교육정책본부 사업진흥팀 안정임 ☎ 02-3780-9766

04. 3차년도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운영사업 전문가 컨설팅 실시

평생교육진흥원은 3차년도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운영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사업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7개 시범운영도시(경기 광명시, 강원 삼척시, 전남 순천시, 경북 칠곡군, 경기 이천시, 충북 단양군, 전남 목포시)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5월 27일(수) 전남 순천시를 시작으로, 6월 2일 경기 광명시, 충북 단양군, 6월 3일 강원 삼척시, 6월 5일 전남 목포시, 6월 9일 경기 이천시, 6월 11일 경북 칠곡

군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평생교육진흥원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위원은 7개 도시별 1, 2차년도 사업운영 결과와 3차년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서면검토에 이어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사업 추진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문의 _ 경영기획실 전략기획팀 안지영 [☎ 02-3780-9712]

05. 2009년 성인문해교육 관계자 직무연수 개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평생교육진흥원과 전주시가 공동 주관하는 2009년 전국 성인 문해교육 관계자 직무연수가 6월 4일(목)부터 5일(금)까지 이틀 동안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4년차를 맞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에는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 백은순 평생교육정책본부장, 이동호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장,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하여 2009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130개 지자체와 교육청 담당자, 353개 문해교육기관 담당자 등 4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연수는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개념 및 인식 확산과 문해교육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직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함양은 물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공유 등 네트워크 활성화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으로 문해교육을 통한 성인학습자들의 초등학력 인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추진하기 위한 16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광역지자체 담당자들과 지역의 문해교육 기관 담당자들의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이번 연수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정책 동향에 대한 기초강연과 개인 역량강화를 위한 선택강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전략 탐색 워크숍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문의 _ 평생교육정책본부 연수문해팀 서영아·전승희 [☎ 02-3780-9759~60]

06. 2차년도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현황 점검 및 컨설팅 실시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에서는 2차년도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2008. 9 ~ 2009. 8)’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이다. 2007년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학습공동체를 비전으로 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교육력 제고를 목표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1차년도에 6개 권역별로 진행되었던 컨설팅을 보다 지역중심적인 맞춤형 컨설팅으로 제고하고자 34개 지역교육청 및 122개 단위 학교를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2달여간 현황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지역교육청 사업관계자 및 관할학교장, 교사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공적인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모델에 따라 현재 지역교육청과 관할 학교들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받고 협의하는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황점검 및 컨설팅 결과는 3차년도 사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3차년도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은 2009년 9월부터 시작되며, 사업설명회 및 사업공모가 오는 6월경에 있을 예정이다.

문의 _ 평생교육정책본부 정책개발팀 이은주 ☎ 02-3780-9753]

07.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6기) 위촉 및 위촉식 안내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제6기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위촉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 분과위원회 구성 : 인문학계열 등 총 11분과 77명 분과위원
- ▶ 분과위원 임기 : 2009. 6. 1 ~ 2011. 5. 31(2년)
- ▶ 분과위원 주요 업무 : 학점인정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중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신청, 자격증 등의 기타 방안에 의한 학점인정에 관한 내용 심의 및 검토

■ 위촉식 개최

- 일 시 : 2009. 6. 24(수) 11:00
- 장 소 : 본원 제 1회의실
- 참석자 : 분과위원회 위촉 위원 및 평생교육진흥원 박인주 원장 외 분과위원회 관계자

문의 _ 학점은행운영본부 학사행정팀 한경아 ☎ 02-3780-9843]

08. 2차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설명회 개최

평생교육진흥원은 ‘2009년 제2차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설명회를 6월 8일(월) 오후 2시에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개최한다. 본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경 예산 53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30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은 노동시장의 변화, 성인의 학습 요구 증대, 학령기 입학자원 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개방적인 학사체제를 운영하며, 다양하고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평생교육 거점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2008년 신규사업으로 도입되었고, 2009년 6월 현재 전국 11개 평생학습 중심대학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09년 제2차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이지에 게재된 사업신청서 양식에 따라 6월 30일까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_ 평생교육정책본부 정책개발팀 이세정 ☎ 02-3780-9755]

09. 전국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동아리 사례발표 경진대회 운영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 맞춰 평생학습동아리 사례발표 경진대회가 운영될 계획이다. 평생학습동아리 사례발표 경진대회는 전국의 우수한 평생학습동아리들의 참여로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추진방향

- 전국의 우수한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참여해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성과발표의 장 마련
- 우수한 학습동아리 발굴 전파로 평생학습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

II. 세부운영계획

□ 개 요

- 일 시 : 2009. 10. 12.(월), 10:00 ~ 16:00
- 장 소 : 구리한강시민공원 (책마당)
- 대 상 : 78개 평생학습도시 및 16개 지역평생교육센터가 추천하는 1년 이상 활동한 학습동아리
- 신청자격 : 특정주제를 가지고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 회원과 지역사회에 학습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지역발전 및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한 학습동아리
- 주요내용 :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사례 발표 및 공유, 전파

□ 운영계획

- 사례발표시간 : 학습동아리별 10분 이내
-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5개 학습동아리 선정
- 1차 심사결과 및 발표순서 : 별도공지(발표순서는 추첨에 의함)

□ 심사 및 시상계획

- 심사기준 : 평생학습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심사 (별도 기준 작성)
- 주요 심사내용 :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열정, 민주적 운영 절차 및 의사결정,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개인의 능력 향상, 학습동아리 활동의 추후 발전 가능성, 사회적 공헌 등
- 시상계획
 - 시상일시 : 2009. 10. 12(월) 폐막식(예정)
 - 장 소 : 구리한강시민공원 메인무대
 - 시상내역 : 최우수 1, 우수 1, 장려 2, 특별상 2(시상금 별도)
 - 훈 격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최우수상)

III. 참가신청서 접수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9. 6. 8.(월) ~ 6. 12.(금)
- 신청대상 : 78개 평생학습도시 및 16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우수 학습동아리 추천(1년 이상 활동)
- 신청서류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중요서류는 사본으로 제출
- 접수방법 : 전자결재시스템, E-mail접수(nnono@korea.kr),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추진상황실
(471-702) 경기도 구리시 교문1동 구리시청(5층)
(Tel. 031-550-8311, 8316 / FAX. 031-550-8320)

10. 2009년 학점은행제 학습과목단위(출석, 원격) 평가인정 실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2009년도 학점은행제 학습과목단위(출석, 원격) 평가인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www.cb.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평가인정의 의미

‘평가인정’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하는 학습과목에 대하여 대학(교)에 상응하는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함.

2 목적

- 평가인정을 통하여 교육능력이 있고 내실있는 교육훈련기관 선정
- 학점은행제 교육 내실화 및 학위의 질 제고
- 평가인정 기준 및 방법 등의 설정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3 대상기관

-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각종학교
- 공개강좌 또는 전공심화(특별)과정을 둔 전문대학
-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등 평생교육시설
- 학원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시설
-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 원격교육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기관은 위 기관 중 원격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의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해당법령에 의해 원격교육이 인정된 교육훈련기관)에 한함.

4 신청기간

-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원격) : 2009. 6. 8(월)~6. 15(월)
-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출석) : 2009. 6. 16(화)~6. 26(금)

5 신청방법

평가인정용 웹(<http://www.cb.or.kr/reg>)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양식 및 제출서류를 학점은행운영본부에 제출

문의 _ 학점은행운영본부 평가인정팀 이현우·신경석 [☎ 02-3780-9821~2]

11. 2009년 평생교육사 1, 2급 승급과정 운영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전문성 향상과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평생교육사 1, 2급 승급과정’을 3일까지 공고·접수하였다.

2008년도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시작으로 2회째를 맞는 2009년도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은 1년에 1회 진행되며, 올해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새롭게 개설하여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승급의 기회를 제공한다.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은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입학대상자 모집선발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대상자로 선발된다.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입학 자격요건]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근거] 별표1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 입학 자격요건]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근거] 별표1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최종선정 결과는 6월 19일 평생교육정보망 홈페이지(www.lll.or.kr) [정보나눔터-공지사항]을 통해 공지되며, 승급과정은 6월 27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9월 5일까지 1급은 90시간, 2급은 80시간의 교육과정과 현장답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두 달여간 운영될 계획이다.

문의 _ 평생교육정책본부 연수문해팀 서순영·윤정은 [☎ 02-3780-9757~8]

12. 2009년 제2차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연수·협의회 개최

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6월 24일(수)에 충청북도 단양군 대명리조트에서 평생교육진흥원,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단양군의 공동주관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최로 ‘2009년 제2차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연수·협의회’를 개최한다.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된 지자체의 최고지도자인 기관장과 교육장을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수립 및 정책 공유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연수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서명범국장의 국내 주요 평생학습동향과 전북대학교 권인택교수의 미국의 주요 평생학습 동향에 대한 강연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번 연수에서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현안 안건 협의의 시간 등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한다.

문의 _ 평생교육정책본부 연수문해팀 서순영·윤정은 [☎ 02-3780-9757~8]

13. 학점은행제 8월 학위수여자 학위신청 및 3/4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신청 안내

1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방문 접수	1. 2 ~ 1. 31 [12.15 ~ 1.15]	4. 1 ~ 4. 30	7. 1 ~ 7. 31 [6. 15 ~ 7. 15]	10. 1 ~ 10. 31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	1. 2 ~ 1. 20 [¹⁾ 12.15 ~ 1.15]	4. 1 ~ 4. 20	7. 1 ~ 7. 20 [²⁾ 6. 15 ~ 7. 15]	10. 1 ~ 10. 20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12. 15 ~ 1. 15	4. 1 ~ 4. 30	6. 15 ~ 7. 15	10. 1 ~ 10. 31

※ 토·일, 공휴일 제외

1) 2월 학위대상자

2) 8월 학위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자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2 8월 학위 신청방법 안내

- 대 상 자 :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8월 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 학습자
- 신청기간 : 2009. 6. 15(월) ~ 7. 15(수)
- 학위신청방법
 - ① 학점은행홈페이지에 접속
 - ②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 ③ ‘학위신청’ 배너를 클릭
 - ④ 휴대폰번호 확인
 -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위 신청 버튼 클릭
 - ⑥ 학위신청 안내 문구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신청
 - ⑦ 공인인증서 확인
 - ⑧ 학위신청 완료(문자통보)
 - ⑨ 학위신청서 출력하여 보관

- ⑩ 학위신청기간이 지난 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학위신청자명단’ 확인
- ※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의 학위신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자’에 한하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자는 해당 대학(교)으로 신청해야 함.

3 최종학력증명서 종류

최종학력증명서	
고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대학(교) 제적자	제적증명서 ※ 제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대학(교)의 경우 재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단, 반드시 재학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증명서 발급일은 재학기간 이후여야 함. 재학기간의 마지막 날짜와 증명서 발급일자가 동일한 경우 제적 여부 판단 불가능. ※ 2개 대학(교)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교)의 증명서 모두 제출
대학(교) 졸업자	졸업증명서

4 학점인정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에 따른 별지서식 + 각종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서식 1번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는 사전보고에 의해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격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별지서식 4번 ※ 학점은행센터 방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은 대조 후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함. 시·도교육청 혹은 교육훈련기관 접수 시에는 해당 담당자가 원본대조 후 사본만 접수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① 시험 합격 : 별지서식 2번 ②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 별지서식 2번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라도 시험응시 경험이 있을 경우, 별지서식2번만 작성
시간제등록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서식 5번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서식 3번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으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문의 _ 학점은행운영본부 학사행정팀 한경아 [☎ 02-3780-9843]

14. 2009년 독학학위제 2단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발표안내

2009년 5월 31일 일요일에 시행된 2009년도 독학학위제 2단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의 성적확인은 6월 26일 금요일 10시부터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bdes.nile.or.kr>)'에서 가능합니다. 과목별로 60점 이상 취득시 합격으로 처리되며 2과목이상 합격자는 3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2009년도 독학학위제 3단계 시험안내

2009년도 독학사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은 8월 16일 일요일에 시행됩니다. 원서접수기간은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24시간 진행되며 7월 17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마감됩니다. 일정을 참조하셔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를 꼭 마치시길 바랍니다.

응시분야는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으로 총 8개 전공입니다. 1, 2단계를 거치지 않고 3단계 시험에 바로 응시하는 자는 지방전공과 동일전공인정(학)과에서 70학점 이상 취득 또는 2학년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응 시 자 격	제 출 서 류	제 출 방 법
2단계 2과목 이상 합격 또는 2단계 4과목 이상 면제 또는 2단계 합격과목과 면제과목을 합하여 4과목 이상인 자 ※ 3~4단계 합격(면제) 과목이 있는 자 포함	• 제출할 서류 없음	• 원서접수시 조회되는 학적번호를 선택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 수료(졸업)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성적증명서 1부 ※ 70학점 미만인 경우 - 수료증명서 1부	• 인터넷 접수과정에서 온라인 첨부 가능한 대학은 온라인상에서 첨부 • 온라인 첨부 불가는 대학은 등기우편으로 7. 24(금)까지 발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제출할 서류 없음	• 학점은행제에서 조회된 학점인정사항을 기입
외국에서 교육과정 이수자	•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 • 학력인정확인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등기우편으로 7. 24(금)까지 발송
과목(과목)면제 신청자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면허증 사본 • 합격증명서 • 과정이수확인서	• 등기우편으로 7. 24(금)까지 발송

문의 _ 학위관리상담본부 출제관리팀 김재열 [☎ 02-3780-9870]

학위관리상담본부 고사관리팀 이은선 [☎ 02-3780-9865]

끊임없는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한 자기능력개발과 고난극복 성공사례

김후진(제1회 평생학습대상 개인부문 대상 수상자)



나, 김후진 공학사(기계공학 전공)는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인 1958년 2월 5일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났다. 집안 사정으로 중학교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학력 인정을 받아야 했다. 학력중심 사회에서 부족한 학력과 비정상적인 학력으로는 장래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하였다. 1977년 3월 한백창원직업전문학교에 들어가 용접 기술을 배웠다. 오늘날 남들이 싫어하는 직종이다. 그러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직종이기에 자부심을 가졌다.

나는 그때 용접 기술을 익히면서 ‘경남지방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은상을 받았고 용접기능사2급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선생님의 소개로 대우중공업의 예비 사원으로 발탁되어 경남 대표 선수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용접직종에 참가하여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1978년 한백창원직업전문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우중공업(주) 창원공장으로 발령을 받아 정식 사원의 자리에 올랐다.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삼아 열심히 일을 하였고 퇴근 후에는 용접 전반에 관한 기술 서적을 뒤적이며 공부를 하는데 마음을 썼다. 특히 알루미늄 용접 및 특수용접에 흥미를 갖고 공부를 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알루미늄 용접과 특수용접 기술자가 가무에 콩 나듯 희소하였기 때문이다.

1982년 특수산업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다. 그곳에서 알루미늄 용접과 특수 용접을 체득하기 시작하였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면서 기술을 익혀 나갔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능인이 되겠다고 열정을 쏟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기능계 최고의 요람인 창원 기능대학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1984년 3월 창원기능대학에 진학, 뜻한바 공부에 매달렸다. 용접 분야의 권위자인 교수님으로부터 차원 높은 기술교육을 받았으며 교수님의 강의를 귀담아 들으면서 놓칠 새라 열심히 공책에 필기를 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을 달래며 복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하여 교수님을 찾아가 실례를 무릅쓰고 해답을 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얻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능이 향상되고 있었다.

교수님들의 열성적인 가르침에 힘입어 내가 바라던 알루미늄 용접과 특수 용접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고 기능대학의 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신 은혜로 1989년에는 국가기술자격 산업안전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1991년엔 용접분야의 기능계 최고자격인 용접 기능장 자격을 국가로부터 공인받는 영광을 안았다. 박사, 기술사와 동등한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명실 공히 국내 용접 기술에 있어서 일인자가 된 것이다. 그 때의 기분은 마치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바라본다는 기쁨이었다. 기능의 ‘기’자도 모르던 내가 어느새 뜻을 이루어 ‘정규대학 졸업을 앞서는 자격’을 갖게 되었으니 말이

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무엇인지 모르는 소명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나의 발전은 물론, 사회와 국가를 위해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1992년에는 ‘금속기술 지도사’ 자격을 따 냈고, 1993년엔 ‘직업훈련교사 면허’를 손에 거머쥐었다. 일일 일진(日日日進)한다는 장인정신에 기인한 소득이라 하겠다. 정해진 계획에 따라 잠자는 시간을 빼고 늘 머리로 생각하며 손발로 실천하는 기능장 근성의 수확이라 믿어진다. “나는 언제나 노동하고 있다. 그리고 늘 생각한다. 내가 항상 어떠한 일을 당면하였을 때 당황하지 않고 곧 처리하는 것은 미리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하여 잘 생각해 두었던 까닭이지 내가 천재여서 그런 것은 아니다”는 ‘나폴레옹’의 말을 항상 교훈으로 삼았다. 나는 언제나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을 하였다. 관리자로서 나의 힘이 곧 회사의 힘이 된다는 인식 속에 신념을 가지고 모든 일을 밀어나갔다. 그래서 내가 속한 부서는 늘 1등을 차지하곤 하였다. 한번도 1등자리를 남에게 내어준 적이 없다. 이 같은 실적에 따라 1994년엔 대우중공업(주)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최고 권위의 ‘현장 기능부분의 장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1997년에는 경상남도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경남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자랑스런 경남도민 100인’에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이 회사 어르신의 특별한 배려와 격려, 아내의 말 없는 도움이라 생각한다. 아내와 딸아이가 나에게 쏟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5년 전부터 내가 밟아 온 길을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전하여 도움을 주고자 글을 쓰고 있다. 내가 가진 적은 힘이나마 회사와 국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라고나 할까. 퇴근 후 내 할 일을 한 뒤에 일일 보고서, 실무 보고서 형식으로 1~2장의 원고지를 채우고 이 일을 위해 인근에 있는 대학 도서관에 몰래 들어가 원고를 정리하곤 하였다. 때로는 회사의 휴게실을 등을 이용하여 글을 썼다. 집필한지 3년 쯤 되었을 때 350쪽 정도의 원고 보따리를 손에 들고 몇 몇 출판사를 찾아가 출간을 의뢰하였으나 시장성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그러나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계속 원고를 썼다. 이후 나는 이론의 나열 뿐 아니라 현장 실무 경험에 의한 기술의 노하우를 담아 나와 같은 길을 걸어 가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내용의 650쪽 분량 원고를 마무리 하였다. 이 원고에는 나의 몸과 마음을 한데 묶어 집필한 이 원고는 책자로 출판되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학자, 교수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써 열심히 노력하며 내가 걸어온 27년의 역사를 한편의 책으로 펴냈다는 데서 큰 자부심을 갖는다. 이 책자는 용접기술 가운데서도 특히 까다로운 알루미늄, 로봇용접, 스테인레스를 다룬 ‘특수 용접의 이론과 실제’로서 국내 최고의 기술서적으로 인정받아 이미 대학교재로 채택되어 학문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가장 낙후되었던 이 분야의 품질혁신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 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27년의 노하우’, ‘이 분야 국내 최초 출간’, ‘현장인이 쓴 대학 교재’, ‘국내 최고의 기술서적’ 등으로 불리며 술한 화제를 뿌리면서 팔리게 되었다. 학계는 물론,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그동안 조선일보 등 11개 일간지와 주간조선 등 3개 잡지, 그리고, KBS, MBC, SBS 등 3개 방송에서 방영되는 등 각계각층의 호응이 있었다.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검정고시와 직업전문학교 과정을 통하여 끝없는 도전과 희생과 노력으로 현장에서 혼자 터득하고,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보완시킨 그 용기와 집착력, 탁월한 이론에 대한 정리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 하나 숨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학력파괴에 의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서의

성장 모습을 실력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앞서 가는 자가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먼 앞을 내다보는 사람, 거기에 실천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빛난다”고 하였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한백창원직업전문학교와 창원기능대학을 모체로 하여 27년 세월을 앞만 바라보며 달려 온 오늘 기능계 최고의 거인이 되었다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남들이 나에게 ‘인간승리자’라고 칭찬하지만, 나는 아직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 있다. “나의 능력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 죽게 된다”는 생각에서이다. 나의 경쟁력이 가정과 회사의 경쟁력이고 그것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신념 때문이다. 불혹의 나이에 불구하고, 주경야독으로 기술계의 최고 국가기술 자격인 ‘용접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부족한 학력이지만 각고의 노력과 기술력으로 커버하고, 실력을 인정받아 학력사회를 능력사회로 바꾸는 일에 앞장서는 장인정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할 것이다.

“1989 산업안전기사1급”

“1991 용접 기능장”

“1999 대한민국 명장(정부로부터 칭호 부여)”

“2001 신지식인 선정(정부)”

“2004 학점은행 공학사(기계공학전공) 학위 취득”

등의 국가공인 기술자격을 밑바탕으로 하여 능력사회 구현에 앞서가는 장인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오랜 동안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겪은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산업·기술계와 공유하고 전수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품질평가와 용접 품질보증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며 3D 직종인 용접분야의 작업표준화 및 평준화, 용접작업자양성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애로기술, 애로공작의 타개, 신제품 개발, 생산성과 효율증대를 통한 기술경영의 성과증대, 공장혁신 등의 기술지도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일한 대가로 얻은 휴식은, 일한 사람만이 맛보는 쾌락이다. 일하고 난 후가 아닌 휴식은 식욕이 없는 식사와 마찬가지로 즐거움이 없다. 가장 유쾌하면서 가장 크게 보람되고, 또 가장 값싸고 좋은 시간의 소비법은 항상 일하는 것이다”고 주장한 ‘힐티’의 말처럼 나는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며 일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에도 그저 묵묵히 견디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모두 팽개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도전으로 앞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겨내고 견디어 내고 끝내 든든히 일어나고야 마는 그 사람의 모습, 진정한 삶의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부 후배들에게 전수하면서...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3D를 피하려 들지 말고 당당하게 도전하라. 부족함과 아쉬움을 내 것으로 만들면 훗날 큰 영광을 안겨 준다.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말을 실천으로 보여주며 평생교육을 통한 능력중심의 학습을 실천한 ‘용접기능장, 용접기술사, 기술지도사, 대한민국명장, 신지식인, 기계공학사’가 된 것이다.

➤ 본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2005)에서 발간된 「제1회 평생학습대상 수상사례집」의 내용을 편집진이 일부 편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노르위치 학습 상점

노르위치 학습상점은 1997년 5월에 개원하였다. 이 학습상점(learning shop) 프로젝트 출범은 파트너십 아웃리치(Partnership Outreach) 캠페인의 성공과 함께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University of East Anglia)과 노르위치 시립 대학(City College Norwich)의 열성적인 지원이었다.

노르위치 학습상점은 개원 즉시 성공을 거두었는데, 개원 직후 몇 주 만에 1,000명 이상이 방문하였다. 2001년 10월에 노르위치 중심부에 있는 새로운 포럼(The Forum) 건물로 이사했다. 개원 후 11년 동안 이십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학습에 대한 자문과 정보를 얻기 위해 노르위치 학습 상점을 찾았다.

처음부터 노르위치 학습 상점은 노르포크(Norfolk) 인근의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학습에 관한 원 스톱 자문 및 정보를 제공하는 상점이라는 개념을 두고 고안되었다. 노르위치 학습 상점은 150개 이상의 교육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노르위치 학습 상점 내부 및 주변 공간은 행인들이 들어와서 이 기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학습 활동에 대한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두발 미용, 댄스, 언어 학습, 음악, 도자기 및 마사지에 관련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노르위치 학습 상점은 포럼(The Forum)에서 증진하고 있는 활동, 즉 커리어 박람회 및 학습 축제 등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르위치 학습상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는 노르위치와 노르포크 지역의 16세 이상의 성인들을 위한 코스에 대한 훈련을 받은 상담원으로부터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며, 어떤 코스가 고객에게 적당한지를 결정하도록 조언을 한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와 조언의 정확성을 최대한 기하며, 필요할 경우 고객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훨씬 더 구체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을 접촉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 및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고객을 지원하며, 코스 제공자들로 하여금 다른 과목을 추가하거나 강의 시간을 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노르위치 학습 상점의 성공은 영국 안팎에서 많은 마을과 도시에 많은 영감을 불러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학습) 제공자들 사이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
2. 연중 일주일에 6일 도시의 중앙에서 학습을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3. 파트너 기관에서 파견된 상담원들은 함께 일하며 학습 옵션에 대한 가장 최신 정보를 공유한다.
4. 지역 학생들은 학습 상점의 상담원들과 행정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학습을 하는 동시에 돈을 벌 수 있다.

학습 상점 모델을 이용해서, 노르위치 학습 상점은 영국 전역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동료들의 방문을 유치했으며 크로머(Cromer), 크로이돈(Croydon), 콜체스터(Colchester), 비르밍햄(Birmingham), 그레이트 야마우스(Great Yarmouth) 그리고 한국 인천광역시 연수구에도 유사한 학습 상점을 개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08년 사우드엔드(Southend)와 수포크(Suffolk)에서도 유사한 학습 상점을 개원하는 작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 본 자료는 평생교육진흥원(2009)에서 발간된 「영국 학습상점(Learning Shop) 운영 사례」의 내용을 편집진이 일부 편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학습동아리 사례

우리나라도 평생학습시대가 도래되면서 학습동아리가 많이 형성되어 시행되고 있다. 미국과 스웨덴은 학습동아리의 정착이 보편화 되었고, 역사적으로도 기간이 길다. 여기서는 미국의 학습동아리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학습동아리에 요구되는 시사점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몽고메리 카운티, 매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학교는 히스패닉 부모들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데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Gloria Francesca Mengual)

몽고메리 카운티의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성취도 차이는 학교와 다른 문화 및 배경을 가진 부모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기 시작하였다. 이에 몽고메리 카운티 학교의 교육자들과 히스패닉 부모님들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함께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동아리를 형성하였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공립학교 학습동아리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교육 시스템을 편하게 여기고, 학교들 사이에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수년 동안 노력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리더들이 모든 학생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2007년 가을, 캐논로드 초등학교는 히스패닉 학부모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히스패닉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삶에서나 성공하기를 원했다. 18명의 참가자가-히스패닉계 부모님 13명, 교장선생님, 1학년 선생님, ESL 선생님, 2명의 다른 유럽계 미국 선생님들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 5명-매주 금요일 밤에 여섯 차례 만났다. 대화를 통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었으며, 대화 속에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이전 삶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러한 것들이 놀랐다고 이야기 하면서 내가 과거에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성찰해 보고, 그러한 성찰을 통한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장점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대화가 발전할수록 열정도 커졌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동아리에 참석한 여성은 언제 학부모·교사 회의에 가는지 통역자에게 물어서 듣고 알게 되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동아리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혼자보다 함께 하는 목소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깨달았고, 이러한 동아리 속에서의 대화는 히스패닉 공동체로부터 새로운 학부모 리더 형성을 이끌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은 역시 시간을 잘 활용했다고 여겼고, 그 그룹은 수시로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동아리에 참여했던 한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번 학부모를 위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학부모들은 스페인어 전화연락망을 구축하였으며, 학교 안내서의 스페인어 번역판은 그들이 궁금한 점이 있

을 때 전화할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학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장 선생님은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봉사할 두 가지 언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학부모를 모집하였고, 학교는 봉사 시간표를 알려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학부모들이 언제 그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이 동아리를 통해 학교와 히스패닉 공동체 사이의 향상된 의사소통이 지속되고 있다.

[미네소타 주 잭슨 시의 학습동아리]

“잭슨은 모든 세대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촉진하고, 젊음을 소중히 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경험을 존중하며,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공동체이다.”(잭슨 비전)

잭슨은 미네소타 주 남서부, 아이오와 주와의 경계근처에 있는 작은 지역으로 미국에 있는 많은 지역사회들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몇몇 사람들은 그 비전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함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돕는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Circles of Support program)을 만들고,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학습동아리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새로운 토론 가이드를 형성하였다.



여섯 개의 학습동아리는 각각 일주일에 한 번씩 다섯 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모임에서는 훈련받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조력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하였다. 다섯 번의 모임 끝에, 모든 참여자들은 실천포럼을 위해 함께 모였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새로운 얼굴이 보였다. 시의원 세 명, 시장, 그리고 두 명의 지역 행정관이 참석하였다. 실천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은 잭슨 지역에서 가난을 몰아내기 위해서 15가지 일을 함께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적 행동이었으며, 실천포럼 이후 몇 달 지나지 않아, 15개 중 7개가 실현되었고, 이 일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리더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사람들이 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던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등 학습동아리가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미국 학습동아리는 우리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미국 학습동아리의 주제는 지역사회 현안들이다. 따라서 학습동아리의 학습주제가 구성원의 삶을 바탕으로 도출된다. 둘째, 미국 학습동아리는 책을 함께 읽거나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는 형태의 학습은 거의 없다. 함께 읽는 교재가 있지만 이 교재는 대화와 토론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뿐이다. 학습동아리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대화 및 토론하고, 실천방안을 모색 및 도출하며, 이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셋째,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습동아리 모임은 연속성을 가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학습동아리 모임은 최종 지점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나 미국의 학습동아리는 약 여섯 차례 정도의 모임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함께 할 실천 방안을 마련해서 실천한다.

➤ 본 자료는 평생교육진흥원(2009)에서 발간된 「평생학습동아리 사례 : 미국·스웨덴을 중심으로」의 내용을 편집진이 일부 편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장 백은순

I. 서론

대학의 역할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굳이 Trow의 고등교육시스템 단계 이행 변화를 나타내는 엘리트 단계, 대중화 단계, 보편화 단계를 논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엘리트만이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당해 연도 고교 졸업생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고, 또 이미 대학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 수가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넘어선 마당에서 대학은 선발이 아닌 충원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의 감소, 그리고 이와 맞불려 성인들의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 선호는 대학 스스로에게 대학이 어떻게 변화해야 생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학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먼저 감지하고 있고 이 변화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1970년대 초반에 1-2 개교에 불과하였는데 40년이 못된 기간 안에 거의 모든 대학에 다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보편화가 많은 성인들이 교육적 요구 해소에 기여한 것은 부정하기 어려우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보편화가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의 보편화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대학의 한 파트로서 제대로 위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관계는 ‘부설’이라는 용어가 말해주고 있듯이 대학이 아니라 그 부설기관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대학 측에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대학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성인학습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의 학부나 학과를 설립하여 학습자를 받아들인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후자는 성인학습자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부설’은 부설에 맞는 지위만을 부여한다. 학습자는 ‘부설’에 어울리게 존재해야지 감히 주인집인 대학에 다니는 자들과 동등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

대부분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보다는 ‘부설’의 역할에 충실하여 행동하였고, 대학은 자체의 기능 변화를 위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부설’에게 주로 성인학습자 전담 기능을 부여한다.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대학의 성인학습자에 대한 역할 기대는 따라서 단순히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역할 변화에 국한될 수는 없다. 대학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대학과 성인학습자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는 영원히 접근거리가 먼 과제가 될 수도 있다.

최근 평생학습 중심대학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라는 새로운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국한되어 대학의 평생교육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자체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평생교육의 방향 전환을 꾀하는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부설 영역이 아닌 본 영역에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정책은 지금까지 사적 영역으로만 간주되고, 대학의 ‘부설’로서 정부 관심의 사각지대였던 평생교육원에 공적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보다 접근하고자 하는 정책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전자는 대학 평생교육의 방향 전환이라는 방향타의 변화를 그리고 후자는 이미 존재하는 현실의 제한 속에서 개선을 도모하는 조그마한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는 이제 대학 스스로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학 개방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 최근의 새로운 정책인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을 분석함으로써 대학 평생교육 추진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유관 정책 분석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추진된 제도나 정책은 고등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개방형 고등교육제도나 대안적 학력인정 제도로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그리고 개방형 대학으로서 원격대학에 관련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학이 체제 개편을 하거나 탄력성·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 직접 지원하거나 추진한 정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대학 재학생 외에 일반 성인의 교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설립되어 다양한 과정들이 운영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고등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대학을 주체로 하여 대학 본교 차원에서 추진된 개방형 제도의 일환으로서 일반 성인들에게 정규과정을 개방한 시간제 등록제, 산업체와 연계한 학위과정으로서 산업체 위탁과정, 전공심화과정, 계약학과 등을 정리해 보고, 대학부설 차원의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정책 및 제도의 현황과 한계점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대학 본교에서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위과정 개방

대학 본교 정규과정을 성인학습자에게 개방하는 제도로는 시간제 등록제와 산업체 연계 학위과정으로서 산업체 위탁과정, 전공심화과정, 계약학과 제도 등이 있다.

가. 시간제 등록제

시간제 등록제는 전일제 학생에 한하여 열려있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는 누구라도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폐쇄적인 대학의 문호를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개방한 것으로 1997년 13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에 1998년부터는 전국의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규 학생과 같이 수업을 듣는 시간제 등록제는 이용자 수가 그다지 많지도 않았고 수업의 질도 정규 대학과 동일한 과정이므로 질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았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수업 증대의 목적으로 on-line 시간제 학생을 대량 모집하면서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학점으로

전락하는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된다.

on-line 시간제와는 달리 off-line 시간제 이용자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정부는 시간제를 활성화하고자 2008년 9월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성인을 위한 별도의 시간제 등록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등교육 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판단해 본다면 시간제 등록제는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과정 개방만 이루어졌고 학점 부여는 별도의 학점은행제도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정규 학위제도의 개방으로 보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나. 산업체 연계 학위 과정 운영

산업체 종사자들이 일을 병행하면서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관 제도로는 산업체 위탁과정, 전공심화과정, 계약학과 제도가 있다. 먼저 산업체 위탁교육과정은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하나로 산업체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 및 계속 교육기회확대를 통해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정규 전문대학 졸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학습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당 산업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산업체 위탁과정은 2008년에 103개 학교, 학습자수 17,647명, 업체 수 12,465개가 참여하고 있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에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대학 졸업자의 현장 적용 능력을 제고시켜주기 위하여 전문대학에서 1년 혹은 2년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공심화과정의 학습 경험은 학점은행제도를 통해서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2008년부터는 전문대학에서 이들 학점을 인정하여 학사학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론적으로 현재 동일 과정을 이수한 후에 학점은행제 학위 및 전문대학에서 부여하는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하다.

계약학과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정원 외로 개설·운영할 수 있는 과정으로 산업체 근로자 및 취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2003년 산학협력 촉진에 의해 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고 있다. 계약학과는 운영 형태는 특정기업체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형’이 있고, 채용을 조건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채용조건형’이 있다. ‘재교육형’의 경우 기업체가 경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면서 대학에 의뢰해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는 형태이다. ‘채용조건형’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산업체가 학자금 지원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협의 내용에 따라 학생들을 받는다. 형태는 대학과 기업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학부 또는 대학원, 전문대학원 모두에 신설이 가능하다. 계약학과는 대학으로서는 기업이 원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고, 기업은 재교육 없이 졸업생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학생들은 취직 걱정 없이 전문직업교육에 매진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 학생, 기업의 수요를 부응하고 있는 결과 2008년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서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전문대를 포함하여 36개 대학 130개 과정이다. 대표적으로 성균관대의 경우 삼성전자와 협약을 맺고 ‘휴대폰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한양대는 하이닉스반도체와 산학협약을 맺고 대학원에 ‘나노 반도체공학과’를, 부산대는 LG전자와 ‘냉동공조에너지전공’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이러한 산업체 연계 학위 과정은 대학과 산업체가 연계하여 성인학습자를 위하여 학위과정을 개방하고 운영하는 점에서 열린 고등교육체제 평생학습으로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산업체 재직자에 한정되어 개방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성인학습자에게 열려지지 않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산업체 위탁과정의 경우 별도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노력 없이 기존의 학과과정을 성인학습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교육과정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전공심화과정의 경우에는 수업 연한을 한정하고 있어 성인들의 계속학습 기본 취지에 어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다.

2. 대학 부설기관에 의한 평생교육 과정 운영 : 평생교육원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대학이 사회교육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권고에 몇몇 선구적 대학들이 ‘사회교육원’ 혹은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여 왔다. 1986년 3개 기관으로 시작하여 2007년에는 375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에 125개, 4년제 대학에 175개가 분포되어 있는 등 전체 대학 총수인 405개교의 74%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은 교양 및 취미교육, 학점은행제 관련 교육,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학점은행제 관련 과목은 평가인정 기제를 거쳐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 보장이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과목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지만 본 대학에서 운영하는 과목과 질적 동일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본 대학에 준하는 학사관리와 행정지원, 그리고 수강생에 대한 편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많은 대학들이 학점은행제 수강생에게 소속 대학 도서 대출증 등을 주고 있지만 이들이 소속 대학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학생과 학점은행제 학생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학교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애매하다. 학교에 따라서는 평생교육원 원장 직을 보직교수의 마지막 자리쯤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으며,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반 행정사무직원의 이직률 또한 높은 편이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성인학습자는 대학의 정규 학생으로서의 대우보다는 단일과정 수강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대학 내 다양한 학생 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학금이나, 학생 복지와 관련된 적극적인 지원체제가 없으며, 계속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상담체제나 성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 외 지원(보육 등)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일반 성인에 대한 사회교육의 법적 의무화가 명시되면서 활성화되었으나, 법적인 명문화 이외에는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단편적인 프로그램 공모사업 차원에서 일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참여가 있을 따름이었다. 제도적인 지원 없이 운영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운영의 안정성이 부족한 형태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라는 당초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대학의 수입원 창출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3.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의 한계

이상으로 지금까지 대학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된 본교 차원의 개방과 부설기관 형태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각 제도별 특징과 유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운영 현황

구분	대학 본교 차원 학위과정					대학 부설 과정
	정규과정	산업체와의 연계 학위과정				
	시간제 등록	산업체 위탁교육	전문대학 심화과정		계약학과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근거	고등교육법 제36조	고등교육법 제40조	고등교육법 제49조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산업교육진흥및 산학협력촉진법 제8조	평생교육법 제30조
해당 대학	대학, 원격대학 방통대 등	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	산업교육기관 (대학 포함)	대학 전문대학
주요 대상	성인 고졸학력자	재직자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재직경력 1년 이상	채용조건형 재학생(취업전제) 재직자 위탁	성인(주부 등) 학점인정과정은 고졸학력자
모집 인원	정원 외 (학칙이 정함) (수도권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10%이내)	정원 외 (학과 모집정원 범위내)	정원 외 (학과 모집정원 범위내)	학교총입학 정원20%이내 (학과 모집정원 범위내)	정원 외 (채용조건형은 전체입학정원의 10%이내)	제한없음
학점	학기 당 12학점	학칙이 정함	학칙이 정함	학칙이 정함	학칙이 정함 *관련 경험 학점인정 : 교육과정의 20%이내	학점 인정과정 연 42학점 이내
수업 방법	출석수업 위주	별도반 편성 출석, 원격, 현장실습 혼합	별도반 편성 출석, 현장 실습 혼합	별도반 편성 출석, 현장 실습 혼합	출석, 원격, 현장실습 혼합	출석수업 위주
학위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학사(산업대학) 전문학사(전문대학)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학사학위	학사, 전문학사 석사, 박사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학자금 지원	미실시	계약에 따라 산업체 부담 가능	미실시	계약에 따라 산업체 부담 가능	산업체 부담 가능	미실시

이상의 제도들은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면서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대안적 학력인정 제도들의 경우에는 고등교육 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하고 있어, 정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새로운 학위과정에 도전하고자 원하는 성인학습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은 있었지만, 대학의 체제를 성인학습자를 입학 자원으로 받아들이고 구조를 변화하기 보다는 대안적 학력인정제도를 통하여 별도의 과정 개설 또는 정규 학생을 위한 과정에 청강생 수준으로 소극적인 개방을 한 형태로 밖에 진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대학의 정규 과정을 일반 성인학습자에게 개방하는 취지에서의 시간제 등록제는 그 자체로는 학점인정이 되지 않고, 학점은행제도의 학점원으로 등록해야만 학점인정이 되는 형태를 띠고 있어 과정은 개방하되, 결과는 다를 수 밖에 없는 ‘절반의 개방’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산업체 연계과정 운영을 통한 대학의 개방 체제는 다양한 형태의 성과를 가져왔으나, 그 수혜자가 일반 성인이 아닌 특정 산업체 재직자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 성인학습자에 대한 평생학습체제 개방이라고 보기에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 고등교육 기회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형태의 제도 운영은 그 학습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학위에 이르지 못하며,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본교 교육과정의 수준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과 영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대학의 영리적 목적만을 위해 활용되는 등의 폐해를 낳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다수인 성인학습자의 생애발달단계와 특성에 맞는 학습 지원 서비스는 확보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개방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III.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최근 그동안의 정책보다 진일보한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들이 나타났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생학습 중심대학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이 그것이다. 전자는 대학 자체를 성인학습자에게 적합한 구조로 변경시키자는 것이고 후자는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하고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로 실시되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두 사업은 현재 제 1기 사업 사이클은 끝난 상태이다. 비록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사업이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선불리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이나 이 사업들의 진행과정을 살펴본 필자는 이들 사업들에서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기에 여기에 두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

가. 사업 필요성 및 목적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가 채택되면서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 9월 시작하였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은 지역사회의 대학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교육 요구를 반영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성인의 계속학습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조직 신설, 학칙 개편 등의 지원 체제 구축을 통하여 개방형 학사운영체제를 마련하고 전통적 학령기 학생 중심의 전통적 대학기능에서 탈피하여 고등교육 운영체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의 평생교육은 II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대학의 제도 자체를 성인학습자에 적합한 체제로 바꾸는 기능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즉, 성인의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내용과 방법의 제공, 양질의 전문성 있는 생애단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체제로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이 같은 그 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은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에 관한 거점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지역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나. 평생학습 중심대학의 특성과 운영 체제

평생학습 중심대학은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령기 대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대학 구조를 개편하여 지역의 성인학습자에게 문호를 적극 개방하는 대학이다. 기존의 학령기 학생에서 성인학습자를 주요 학습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위하여 성인친화적인 구조로 체제를 개편하고 개방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 발전을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외부 학습자원을 네트워크로 연계하는 대학이다. 지자체가 대학과 함께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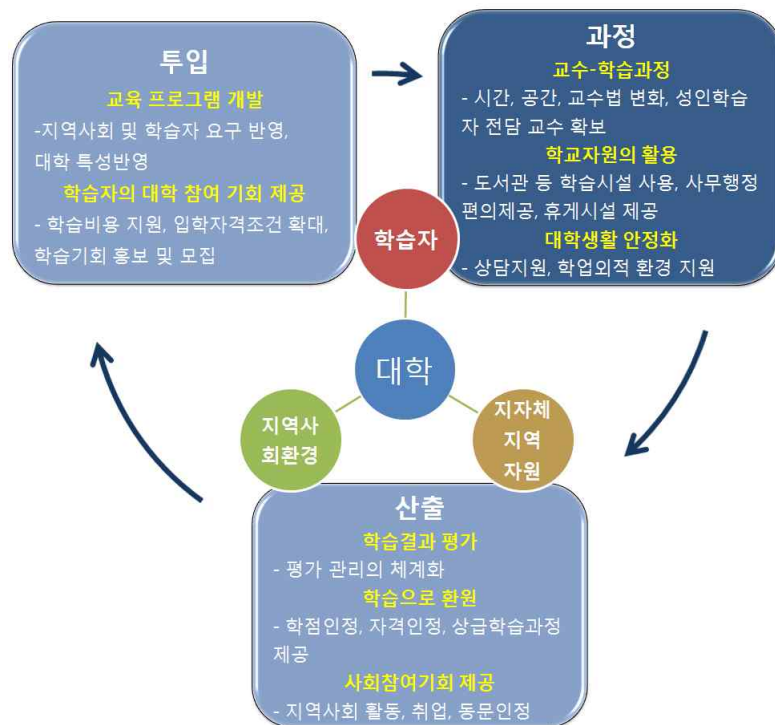
셋째, 지역 주민의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반영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발·제공하는 대학이다. 지역과 동떨어진 상아탑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수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생학습 중심대학의 특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운영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투입, 과정, 산출의 세 영역이 모두 평생학습 중심대학 운영에 적합해야 한다.

첫째, 투입 차원인 학습기회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성인학습자의 학습 촉진과 기회 제공을 위한 학습비 지원 및 입학자격 조건의 확대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요구와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고, 성인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과정 차원에서는 성인학습자들이 대학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면서 소기의 학습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다각도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방을 통한 탄력적 교수-학습과정 운영, 전임교원의 적극적 참여, 성인학습자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탄력적 교수 학습과정 운영은 주말, 야간 등의 성인학습자에게 적합한 시간대에 교육과정 개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은 대학 자체가 성인을 위하여 변화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침과는 달리 전임교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교수들이 일반 학생을 교수하는 것과 성인학습자를 교수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도록 수업 시수 인정 등에 관한 차이를 없애야 한다. 보육 및 탁아시설 등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시설 확보도 필요하다. 또한 대학 생활에 익숙치 않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상담도 필수적이다. 성인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중도 탈락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학습 점검과 학습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결과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학습결과에 대한 인정과 학습결과를 통한 사회 참여 기회제공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성인학습자들이 참여한 학습과정이 학위과정일 경우에는 학습결과가 학점, 학위로 연결되는데 지장 없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운영 체제를 도식화 해 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평생학습 중심대학 운영체제

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 운영 내용

2008년도에 평생학습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총 7개교이다.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한 각 사업단 별로 8천만원 또는 1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자체와 대학의 대응투자를 포함하여 전체 9억6천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이들이 개설한 교육과정은 총 83개 과정이며, 2,774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은 대학과 지자체간의 연계를 기본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 상의 (전문)대학과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연계가 이루어지는데, 주체 간 연계 형태는 1개 지자체-1개 (전문)대학, 다수 지자체-1개 (전문)대학, 1개 지자체 - 다수 (전문)대학, 다수 지자체 - 다수 (전문)대학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었을 때 대학의 체제 변화 및 교육과정 개발은 대학자체로 추진하며, 지원되는 국고 지원금은 평생학습 중심대학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성인 학습자의 학습비로 지원한다. 이 때 학습비는 수강료와 개인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2008년의 경우 성인 학습자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로 제한하였다. 학습비 지원은 정책적 대상 그룹(Target Group : 저소득층, 저학력층, 노인, 여성 등의 전통적 소외계층과 이주 여성,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등 신소외계층)을 우선 배려하며, 일반 성인학습자는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은 대학과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국고 신청액의 20% 이상 지자체와 대학의 대응투자는 필수 요건이다. 대학과 지자체의 업무 분장은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은 (전문)대학이, 성인학습자 수요과약 및 모집 협조, 학습비 지급은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지정된 지역의 기초지자체(기 협약체결)가 지역 성인학습자의 학습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에 학습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지자체와 대학의 협약 체결, 성인친화적 구조 개편을 위한 학칙 개정, 조직 신설, 그리고 질 관리를 위한 전임교원의

참여, 성인학습자를 위한 탄력적인 학사관리, 성인과 지역사회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성인학습자의 전문적인 학습설계 및 상담, 학습 결과에 대한 활용 및 학습결과 인증,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서는 지자체와 연계를 맺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인문교양과정, 지역사회참여과정, 직업능력향상과정, 자격증취득과정 등 성인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A대학교는 문화도시로서의 특색과 취업전문대학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문화시민 핵심리더과정’, ‘문화마을 조성리더 과정’, ‘이주여성 대상 아시아문화교류과정’, ‘광주문화역사마을해설 전문가 과정’ ‘대체요법전문가 과정’등을 운영하였다. B대학교 역시 지자체와 대학의 특성을 연계한 인문교양과정과 자격증 취득 및 지역 특화과정을 운영하였으며, C전문대학, D전문대학과 E전문대학에서는 대도시에서 있는 성인들의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대학 특성을 살려 기술자격 취득과정 및 어학전공과정을 위주로 운영하였다. F대학교에서는 성인학습자 교육역량강화과정, 지역주민참여과정, 지역산업체 종사자 능력향상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며 G대학교에서는 여성 지도자 교육과정, 한국전통문화이해과정, 성인중학교실, 평생학습마을리더양성과정 등을 운영하였다.

라. 성 과

평생학습 중심대학의 운영 결과 참여한 대학과 전문대학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있어서 획기적인 체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으며, 체제를 바꾸기에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고, 법 제도 등의 외부 환경 정비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학의 변화가 가능하고 대학에서 성인학습자를 수용하는 자세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의 운영 결과의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자체가 성인학습자의 학습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참여 대학들은 조직 변화, 탄력적인 학사운영,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라는 ‘부설’에서가 아니라 대학 본부가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직변화와 관련하여 B대학교의 경우 평생학습학부를 별도로 신설하였으며, D대학에서는 교학처 산하에 평생학습지원실을 설치하고 산하에 평생교육개발팀과 평생교육관리팀을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7개 운영 대학 중 4개 대학이 야간 강의를, 2개 대학은 주말 강의를 개설하여 성인 근로자들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특히 B대학교와 A대학교는 직장 학습을 병행하기 위한 지원으로 야간 강의를 개설한 결과, 야간 강좌의 비중이 전체 개설 강좌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이들 강좌를 위하여 야간과 주말에 학사행정을 지원하여 성인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였다. G대학교의 경우 7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이 원하는 강좌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강의장을 개설하고 직접 대학교수진이 찾아가는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 확장(out reach) 시스템으로 강좌를 운영하였다.

더불어 성인학습자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에 참여한 성인 학습자의 학습 기회 확대 및 지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우 지역 내 보육기관과 연계하여 보육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여 학습에 참여하는 여성을 지원하였고, 학습참여 지원을 위하여 전용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도서관, 수영장, 헬스장 등 정규 학생과 동일하게 지원하여 성인학습자의 소속감과 학습 지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둘째, 대학의 개방이 지역 및 지자체와의 수요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B지자체와 B대학교의 경우, 경전철 개통으로 지역에 대한 관광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지역 관광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역 관광 해설사 양성과정을 B대학교에서 개설함으로써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고 추후 취업으로 연계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하여 전문가 과정을 개발하였다. A대학교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비전을 반영하여 ‘문화예술지도자’, ‘예술치료 및 상담 전문교육’, ‘이주여성 대상 아시아문화교류리더’ 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지역 및 지자체의 교육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셋째, 대학과 지자체가 노력하면 성인학습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철저한 질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에서는 수업관리와 학습자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업관리는 학습자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장에 출석부를 비치하여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며, 교육 강좌에 대한 교강사의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학위과정과의 연계 또는 정규학위 진입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성인학습자의 정규학습과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임교원의 적극 참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적극 추진하였다. 대학교수들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에 실제 참여함으로써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교육의 질과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대학이 대학의 전공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대학교수들의 강사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등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을 간접적으로 개방하여 성인학습자의 대학교육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 대학 운영모형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C전문대학의 경우 두피모발관리사 과정 운영을 피부미용학과와 연계하여 운영하여, 수료한 학습자에게는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성인을 위한 별도의 시간제 등록과정으로 운영하였다. 시간제 등록에 대한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과정은 동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며, 이수 후 민간협회와 연계하여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다. A대학교의 경우 대체요법전문가 과정 운영을 대체요법학과와 연계하여 운영하였는데, 성인학습자들이 본 대학으로 바로 진입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미리 맛보기 강좌를 수강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 학위과정 이전 준비과정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들 과정 수료자 중의 일부는 동 대학으로 진학함으로써 동 과정이 성인학습자들에게 본 대학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섯째, 성인학습자의 학습결과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이다.

과정 수료 후 학습자들이 지역사회전문가로 활동하고,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G대학교의 경우 지역의 여성지도자, 마을 평생교육지도자, 지역 리더과정 양성을 통하여 지



역사회 리더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봉사과 참여를 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양성과 함께, 학습 이후 평생학습 동아리 결성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역사회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D전문대학의 경우 미용관련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후 복지관 등 사회봉사단과 연계하여 성인학습자가 미용봉사에 참여하는 등 과정 이수 후 자격취득과 함께 사회봉사로의 연계를 추진하였다. A대학교의 ‘이주여성 대상 아시아문화교류리더’과정은 신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이주여성 대상으로 실제적인 고용창출과 연계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교육 뿐 아니라 교육 후 지역사회로의 활용까지 연계하고자 추진하고 있었다. 즉 교육을 통하여 이주여성의 정주의식과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을 방과후 학교 전문강사로 육성시켜 지역사회 참여로까지 연계하고자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이 짧은 기간 동안에 소기의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참여 대학들이 서로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체제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평생학습 중심대학은 매우 적은 예산, 그리고 적은 예산에 비하여 대학에 대한 많은 요구 사항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약 6-7개월 동안에 전체 대학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3번에 걸쳐 개최하였고, 중간 점검 및 최종 평가를 하였다. 각 대학들은 자신의 결과를 타 대학과 공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학 간의 차이점이 인지되었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으며, 보다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적은 수의 대학 참여, 참여대학 간의 정보 공유, 그리고 이들 대학 간의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한 사업 추진이 평생학습 중심대학의 기본 체제 구축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2.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

가. 사업 필요성 및 목적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은 앞서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과 함께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의 일환으로 2008년에 시작되었다. ‘고등교육의 대중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사회 환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등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어 왔지만, 대학의 지역 봉사 기능은 실질적으로 제한적이며 부분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에서 ‘지역사회 안’의 대학에서 ‘지역사회의’ 대학으로 위상 및 역할 전환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사업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원하는 주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교양 강좌의 비학위 과정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기능을 변화시켜야 하였으며, 이에 대학의 정규과정과 연계성을 높이고, 개인의 학습과정 및 진로 경력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들에게 제2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을 통한 대학의 체질적 변화와 함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였다.

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의 특성 및 운영체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은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과 병행하여, 지역 평생교육기관을 활용

한 상향식 접근과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하향식 접근의 통합형으로 추진되었다. 기초 및 심화 과정의 위계적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유도하고, 대학의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역량과 지역 평생교육기관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역량의 결합을 꾀한 것이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대학 고등교육에 근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유도하면서, 지역 평생교육기관을 통하여 고등교육 입문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유도하였다. 이와 동시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의 대상으로 학습소외계층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평생학습의 경제적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역 평생학습의 잠재육구를 발현시킴과 동시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선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평생학습의 잠재육구를 실현토록 유도하였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요약된다.

첫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지역 평생교육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 대학-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단순히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둘째,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한 학습결과 인증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소외계층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역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고,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들의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학습계좌제를 통한 인증을 통해 지역 경제의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셋째,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소외계층이 타 계층과의 교육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문화적 격차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본 사업에서는 소외계층에게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고, 소외계층과 일반인의 통합교육을 유도하여 계층 간 상호이해를 통한 문화통합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 운영 내용

사업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으로서 교육내용 및 강사의 질 등 평생학습을 위한 제반 여건이 우수한 평생교육원을 지원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프로그램 당 500만원, 1교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여 1교당 최소 2개, 최대 4개까지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습비 지원에 있어서는 학습소외계층의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30만원씩 1개교 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인당 1강좌로 제한하여 타 기관에서 중복수강을 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야 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흥

보를 통하여 기관의 운영 프로그램의 수강을 희망하는 소외계층을 모집하였다. 모집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조손 및 한부모가정,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새터민 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우선적 대상이 되었다.

2008년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에 응모한 기관은 총 84개교로 학습비 지원을 신청한 기관은 10개교, 프로그램 개발 신청 기관은 6개교, 학습비와 프로그램 개발을 동시에 신청한 기관은 68개교였으며, 이 중 43개교는 학습비를 지원받았으며, 37개교에서는 총 120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원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개발 영역으로는 기초직업능력교육, 민주시민역량교육, 지역사회개발교육, 은퇴 후 생애설계교육 등 네 가지 영역을, 개발유형으로는 대학 단독 개발, 대학-지역 공동 개발, 온·오프라인 혼합 등을 제시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였으며, 학습비 지원은 소외계층을 위한 별도반 편성을 금지하고 소외계층 학습자의 선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습자가 선택한 프로그램은 모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학습비 지원을 받은 소외계층 학습자의 수료율은 95.24%로 출석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습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에 참가한 소외계층 학습자들의 경우 별도반 구성을 금지함으로써 일반인과 함께 수업을 듣도록 유도하여 학습 의욕 및 참여율 고취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소외계층과 일반계층의 상호 이해 증진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인의 소외계층 수업 참여를 꺼리는 현상도 동반하여, 일반인과의 통합교육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소외계층을 유형별로 분석하자면, 노인이 39.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장애인 26.1%, 저소득계층 16.4%, 다문화가정 8.2%, 조손 및 한부모가정이 7.8%, 외국인 근로자 및 새터민 등이 2.7%를 이루었다.

라. 성 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개설되어 운영되어 온 프로그램과는 달리, 고등교육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지역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체제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대학이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지역 평생교육기관 역시 대학과의 정보공유가 가능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성인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

36 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및 지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였다. 즉, 기초과정은 지자체 및 지역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심화과정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체제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수 있었다. 또한 홍보 및 학습자 모집에 있어서도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대응투자를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한 사례도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수강을 희망하는 소외계층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그동안 높은 학습비용으로 인해 접근하기 힘들었던 소외계층에게 대학의 문호를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개방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외계층의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 및 요구의 증대를 이끌었다.

마.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사업 비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을 몇 가지 준거에 의하여 비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 비교

구 분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
사업주체	(전문)대학·기초지자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지원대상	지역의 성인학습자로서 정책적 대상그룹 -소외계층 및 일반 성인학습자 포함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소외계층 학습자
지원내용	평생학습 중심대학 운영을 위한 학칙, 조직 등 제도개편, 상담체제 등 학습자 지원체제 구축, 성인학습자 및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등	• 프로그램 개발지원 :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초/심화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운영지원 : '08년 사업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 중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 학습비 지원 : 실직자, 저소득계층,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이 고등교육기회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소외계층 학습자
연계기관	기초지자체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
사업예산	국고 7억원 + 지자체·대학의 대응투자(국고 지원액의 20%) 이상	1,985백만원
예산집행	평생교육진흥원 → 지자체 → 대학	평생교육진흥원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개선사항	국고지원이 학습비 지원으로만 집중되어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과 중장기 계획이 미진	평생학습중심대학이라는 큰 틀과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지 못하고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지원 사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09 사업방향	• 대학의 제도 및 체제 개편을 통하여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의 모델 정착 • 대학의 여타 기관 및 제도와 연계하여 성인학습자의 종합적 지원센터 역할과 성인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로서 역할 정립	•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 사업과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대학의 학과,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과 연계를 맺어 성인중심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평생학습중심대학 선정대학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대학과 지자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을 수 있도록 유도

IV. 논의 및 향후 과제

그동안 이루어졌던 대학 평생교육 지원 정책은

- 1) 대학 자체적으로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학을 개방하는 방식과
- 2)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대학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전자는 제 2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대학 자체가 틈새시장을 개발하여 특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대학 개방 정책들은 상당한 명분을 갖고 있건만 여러 문제를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대상자가 특정 대상에 국한되어 제대로 개방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2)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한 대학 개방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대학 개방이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대학은 명분상으로는 대학의 사회적 봉사기능 수행을 그리고 실리적으로는 대학의 수입구조 개선을 꾀하여 왔다. 그러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한 대학 개방은 대학의 개방이라기보다는 부설기관을 통한 대학 일부의 개방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즉, 대학에서 주 고객은 재학생이고 성인학습자는 제 2순위의 고객에 지나지 않는다. 성인학습자에 대한 대학의 이와 같은 생각은 특히 부설 평생교육원과 본교와의 행·재정 관계를 살펴보면 확연해 진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대학은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대학의 경우 부설 평생교육원의 수입은 대학 본부로 이관되어 진다. 다시 말해서 성인들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납부한 등록금 및 수업료가 본부로 이관되어 사용된다. 필자와 면담한 평생교육원 원장들의 말에 의하면 평생교육원 수입의 20%, 많은 경우에는 40%까지 대학 본부로 수입이 이관된다고 한다. 즉,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수입 창출 기구로 인식하고 있고, 활성화의 제 1목적이 수입 창출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많은 대학들은 교수의 평생교육원 강의를 수업 시수로 인정하지 않아 교수의 출강을 자연적으로 막는 구조를 갖고 있고, 직원들을 주로 계약제로 고용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대학 개방을 하고 있지만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평생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 부여 정도가 그 동안에 이루어진 지원이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에 필요한 140학점 중의 30학점에 해당하는 교양과정 운영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교양과정 이수 학점은 모든 학습자가 취득해야 하는 필수 학점이었고, 이 필수 학점 운영권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부여함으로써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성인학습자를 받아들이는데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새로운 과정 개설을 하거나 기존 커리큘럼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재정 지원 등을 해 준 적은 없었다. 예를 들어 학점은행제에서는 매년 새로운 교육과정을 교육기관에서 자유롭게 제안하고 이를 심의하여 인정하여 고시한다. 성인학습자에게 적합한 시의 적절한 교육과정 개발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비용은 제안하는 측의 몫이었고 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지원은 2008년에 시작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에서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공공의 책무가 비로소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은 기존보다 진일보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대학 자체를 평생학습의 근거지로 바꾸려 하는 점에서 그리고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비로소 정부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이들 기관에 다니는 성인학습자가 교육 수혜 대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은 사적인 영역에 속해있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개발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측면에서 대학 개방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인정한 정책 전환이라 볼 수 있다. 예산 규모는 차치하더라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그동안 자본의 논리에 의하여 쉽게 접근하지 못하였던 소외 계층,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독려하였다는 점에서 대학 평생교육 문호개방 및 대학 평생교육의 질에 대한 정부 관심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은 대학의 개방을 부설 평생교육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대학 자체의 개방으로 하고자 한 대학 평생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을 전제하고 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평생학습이 중심이 되는 대학으로 부설 기관이 아닌 본 대학 자체가 평생학습을 위해 거듭나야 하는 대학이다. 그러나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은 목적의 위대함과 그에 따르는 내부 대학 개혁 등의 일감의 중요성과 방대함에 비하여 예산 지원은 저소득계층 위주의 학습비 1인당 몇 십만원에 그쳐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예산상의 어려움 이외에 기존 법령 및 관련 제도와의 연관성 미비 등의 여타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기간, 예산 등을 고려할 때 평생학습 중심대학은 대학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변모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시도가 나왔으며,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대학 구성원이 밖으로부터 주어진 일을 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학 주체적으로 고유의 대학 개방 방식을 찾아내기도 하였다. 2008년 선정된 평생학습 중심대학의 평생학습 개방 결과는 아직 여러 가지 개선의 여지와 문제는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이다.

대학의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위한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은 몇 가지 조건이 구비된다면 대학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정책적으로 추진할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였다고 하여 아기가 혼자 자라나지 않듯이, 이들 사업 역시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세밀한 조건 정비와 지원제도와 체제 구축을 필요로 한다. 이들 사업이 성공을 거두어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 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평생학습 중심대학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에 대한 검토 및 이미 운영되고 있는 성인학습자 대상 개방형 고등교육 제도와의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 중 중요한 몇 가지를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대학 정원 : 현재 평생학습 중심대학의 성인학습자는 대학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향후에도 계속 정원 외 정원으로 할지 아니면 정원 내 정원으로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성인학습자도 학습자이므로 정원 내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수도권 및 유명 대학을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수도권으로부터의 외면이 다시 평생학습 중심대학에 대한 인지도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② 학점당 등록제 : 우리나라는 현재 학기당 등록제를 하고 있는데, 학기당 등록제는 많은 과목을 한 학기에 이수하기 어려운 성인학습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이다. 현재 평생학습 중심대학은 과목당 등록제를 하고 있다. 비 학점과목 뿐 아니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이 증가할 경우 과목당 등록제와 학기당 등록제는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대학이 학습자가 학기당 필요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점당 등록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③ 시간제 등록제 : 현재 시간제 등록제 정원 및 학점인정 규정은 대학의 무분별한 시간제 과행 운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이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시간제 교육과정에 대한 정원 제한도 이러한 이유로 만들어졌고, 더구나 시간제 학점은 학점은행제를 통하지 않으면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학점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성인학습자들이 주말에 시간제 과정을 수강하고 싶어도 본 대학 입학 정원을 고려해야 하고 또 다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인정받고 이를 다시 소속 대학의 학점으로 전환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상의 제한은 질 관리를 위한 것인데, off-line으로 행해지는 시간제의 경우에는 사실상 필요 없는 규정이다. 따라서 시간제 학점을 소속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질 관리를 소속 대학이 감당하게 하는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질 관리와 행정의 편의가 동시에 수행될 수 있고 학습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④ 학점은행제와의 관계 정립 : 많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학점은행제 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대학 시간제 학점은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은 학점은행제의 범위를 대학 내로 국한시킨다는 차이가 있을 뿐 학점은행제와 같은 학점을 공유하게 되는 구조이다. 학점은행제 제도 내의 학점과 평생학습 중심대학의 학점간의 공유, 인정 방식, 예산 지원 방식 등 두 제도 간의 정립이 필요하다.

학점은행제 교수요목과 교육과정 개발은 또한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의 프로그램 개발과도 관련성이 높다.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은 이미 질을 담보한 과정이므로 향후 활성화 사업과 학점은행제와의 공유 지원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끝없는 모니터링과 참여에 기반을 둔 책무성 증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이 짧은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은 외부 모니터링이 계속하여 있으면서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이 주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예산을 지원하고 방치하는 정책은 실패하기 쉽다. 그렇다고 대학의 자율을 구속하고 여러 대학의 상황을 무시한 채 한 방향으로 질주하는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방향은 정립하되, 각 대학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나름의 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컨설팅, 동료 평가, 개별 환경별 극복 사례 공유 워크숍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어져야 한다.

셋째, 평생학습 중심대학이 보다 활성화되어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연구는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한 규범적, 현실적 차원의 고민과 외국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우리나라 현장의 사업실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평생학습대학 모형 개발, 관련 조건 분석 및 해결책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평생학습 중심대학과 여타 대학 지원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평생학습 중심대학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은 제 1차관 소속의 평생학습정책과에서 관장하는 반면에 대학에 대한 지원은 제 2차관 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동일 대학이 어느 곳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지를 점검하는 기능은 없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대학의 방향을 정한 대학이 다시 연구 중심 대학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과연 한 대학의 방향이 예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번 바뀔 수 있는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중심대학은 대학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고 이는 장기간의 변화를 필요로 하므로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평생학습 중심대학은 매년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다음 해의 지원 여부를 알 수 없다. 대학의 구조 개선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러 대학으로 중심대학을 확정하기에 앞서 우수 대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년도 사업으로 예산 지원 정책이 바뀔 필요가 있다.

➤ 본 자료는 평생교육진흥원(2009)에 발간된 「제1차 평생교육정책포럼 :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와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의 내용을 편집진이 일부 편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차 평생교육정책포럼 토론 요지

1. 평생학습 중심대학 정착을 위한 제언(송병국,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원장)

-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인학습자를 위한 정규 고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형 성인학습대학(한국형 Community Collage)임. 특히 기존의 학점은행제나 시간제등록제 등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의 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제도 존재했으나, 지역사회와는 무관한데 반해 평생학습중심대학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됨.
- 지역의 주민과 산업의 특성을 적극 반영함. 지역과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하여 정부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지역과의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역교육 협력 중심대학 등 실현 가능.
- 대학의 학생 자원이 학령기 학생들에서 성인학습자로 이동하면서 대학의 교육체제를 신평생학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음.
- 대학정원의 문제 - 대학정원을 늘리면 않됨. 대학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평생학습중심대학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면 낙인이 찍히게 됨. 정원부족 학교로 대학으로 낙인 찍히면 대학의 존폐 위기 놓일 수 있음.
- 학습비 지원의 규모 - 1인당 학습비 50만원 지원, 평생학습대학 학칙개편, 조직신설, 지자체와 함께 조례 제정 등의 노력에 반해 8,250만원이라는 지원금은 적은 규모임.
- 정규학위 과정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과 중복됨.
- 순천향대학의 경우에는 평생학습학부 신설했음. 단과대학으로 승격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일반 성인들이 쉽게 이수할 수 있는 전문화된 과정 개설이 쉽지 않음.
- 하나의 통일된 조직 필요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학위과정과 비학위 과정으로 나눠서 관리를 해야할 것임.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 임.
- 대상 확대에 신중 - 사범대학의 사례를 통해 대학의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하고, 이후에 확대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 필요함.

42

2. 지역과 대학의 파트너십을 통한 학습도시 창조(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

- 고등교육의 대중화, 대학원의 대중화 가속으로 세대 간의 학력격차 심화. 이는 지속적인 성인들의 고등교육 욕구를 수용해야하는 시대적 상황
- 대학이 위기적 상황이나 생존전략이 부재함. 이는 전세계적 현상임. 지역의 주민과 산업체와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으며 생존의 방식을 찾아가는 대학의 생존 방식 모색해야 함.
- 우리나라 대학의 성인계속교육 구조는 많은 제도들이 유기적인 연관이 없는 난맥상을 보임. 대학 내 평

생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제도화된 형태의 성인 계속교육 지원 구조를 만들어야 함.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는 임의적인 기구로 간주되면서 주류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한계 지남.
- 본 사업을 통하여 평생학습도시와 평생학습중심대학이 연결되는 모델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를 통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대학이 산업체와 연결되는 산학협력모델과 대비해서 평생학습도시가 대학과 연결되는 시민대학모델을 위해서 대학의 구조적인 변화 요구됨.
- 평생학습도시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평생학습중심대학을 통해서 잘 구조화되고 잘 수용될 수 있는 문화형성이 필요할 것임.
- 예를 들면, 고등교육 기회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들의 학습도시들이 공공 평생교육센터에서 학점은행제도를 도입하여 평생학습대학 운영 중(칠곡군, 단양군 사례)

3. ‘대학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단상(이희수, 중앙대학교 교수)

- ‘세기의 재판, 한국 평생교육’을 준비하라(A Trial of the Century). 이것은 미국 성인교육학회 포스터 제목으로 한국평생교육의 세기의 재판 끼리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국평생교육의 10년을 평생교육 법정에 설 끼리를 하나 세우는 것이 어떨까?
- 평생교육의 만병통치약으로서 관학협동을 다시 생각하라(Town and Gown). 대학은 총체적 세일즈에 있다. 관학협동이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
- 대학 평생교육의 상품화에 대한 경계경보를 발동하라(Academic Capticalism). 커뮤니티는 사적자본과 아카데미 캐피탈리즘 ‘공적자본과 사적지식의 결혼’ 대학가의 망령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은가.

4. 지역평생학습 활성화와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 전략에 관한 토론

(정미경, 삼척시 평생학습지원센터장)

- 동일사업에 대한 동일기관 내의 다른 주관. 동일학교에서 평생교육원장과 대학 총장의 입장차이 조절 필요
- 동일사업에 대한 이중지원. 실제로 평생교육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을 통해 성공요인 분석 필요
- 오히려 대학 내에서 지역민을 위한 평생학습 기반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대학 평생교육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 연구 과정을 거쳐 대학 평생교육원의 본래 목적과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질적 틀 바꿈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 실어주기’가 우선임.
-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고등교육기관의 재구조화를 통한 평생학습프로그램 내용의 질적 향상이 목적이라면 대학 내 평생학습 창구의 일원화 요구됨.

5. ‘대학 평생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토론(채재은, 경원대학교 교수)

- 우리나라 성인대학생으로 대별되는 만학도의 고충은 단순히 전일제 대학생 위주의 캠퍼스 환경에서의 ‘소수자’로서의 고충 뿐 아니라, 학업과 일, 가사(육아 등)를 병행해야 하는 고충, 전통적인 대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사시스템(전일제 등)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이는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한 대다수의 대학들이 이 사업을 통해 제공된 과정들이 해당 대학의 학사체제와 연계되지 못할 경우에 사업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것과 일맥상통함. 전통적인 대학학령인구 위주의 현재 고등교육정책 패러다임을 학생선발, 학사운영, 학생지도, 수업 진행 등을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임.
-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은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으나, 단기성 저예산 사업이라는 한계를 지니므로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대학운영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가 필요함.
- 사업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성인대학생 친화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인 구도 하에서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일터, 학교, 가정에서 복합적 역할을 맡고 있는 성인학습자들의 교육적 요구와 개인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고등교육 시스템 전반을 혁신해야 하기 때문임.
- 장기적으로 모든 대학들에게 ‘성인대학생’ 유치는 거의 필수 사항이 될 것이고 기존의 ‘전통적인 한국 대학학령인구’만을 수용하는 배타적인 입장을 벗어나,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새터민, 다문화 가정 자녀, 외국인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임. 이를 통해 성인대학생은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을 보다 다양화하고 유연화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간의 연계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연구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음.

광역차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준비 현황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9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이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20조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획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 체제 구축,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업무 수행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시행령 제12조는 시·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시도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의 방향설정 및 관련 예산확보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모형개발 연구’(2009년 3월~8월)를 진행중이다. 이 연구의 기초자료의 하나로 지난 3월 11일(수)부터 3월 25일(수)까지 14일간에 걸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에 대한 조직, 조례제정, 설립유형 의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총 32개 기관, 16개 시·도청 및 16개 시·도 교육청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로 조사결과 응답률은 59%였다. 연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구분	평생교육 업무 담당 조직	조례제정 여부	시도진흥원 설립유형 의견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교육기획관 평생교육담당관	제정 (’09. 3. 18)	시·도 산하기관 별도 설립
부산광역시	경제산업실 교육과학기술과 교육지원담당	제정 (’09. 2. 4)	기존 시·도 소속 기관 위탁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교육협력담당	제정 (’09. 5. 11)	기존 시·도 소속 기관 위탁 (종합사회복지관)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평가담당	-	-
광주광역시	정책기획관실 교육지원팀	-	시·도 RHRD 센터 기능 전환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 국제교육담당관 평생교육담당	제정 (’08. 12. 26)	기타 (건축비와 운영비등 지원)
울산광역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제정 (’08. 10. 16)	시·도 RHRD 센터 기능 전환
경기도	문화관광국 교육협력과 평생학습팀	제정 (’09. 4. 21)	시·도 산하기관 별도 설립

구분	평생교육 업무 담당 조직	조례제정 여부	시도진흥원 설립유형 의견
강원도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담당	-	-
충청북도	정책관리실 정책기획관	-	기존 시·도 소속 기관 위탁
충청남도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법무담당관 평생교육 T/F팀	제정 (’08. 10. 30)	시·도 산하기관 별도 설립
전라북도	기획관리실 인재양성과 인재양성담당	-	기존 시·도 소속 기관 위탁
전라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책조정담당	제정 (’09. 2. 5)	-
경상북도	행정지원국 인재양성과	제정 (’09. 3. 9)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지원담당	제정 (’08. 12. 31)	시·도 산하기관 별도 설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인적자원과 인재양성 담당	제정 (’09. 3. 18)	-

또한 10개 시도에서 진흥원 설립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진흥원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 울산광역시·대구광역시의 조례)

- 해당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제공
- 평생교육 상담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 운영
-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 법23조에 따른 학습계좌제 운영
-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지정한 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 관련 조례 제정

2006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해 온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문해교육의 실시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집행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중학교 학력인정을 위한 성인문해 교과서개발, 문해교육 관계자 및 문해교육 교원 연수 등을 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문해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황을 살펴보면, 안산시(2007. 4. 26), 광주광역시남구(2007. 7. 20), 경상북도(2007. 11. 5), 아산시(2008. 12. 5), 울산광역시(2009. 4. 2)가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지자체의 조례는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에 의거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 안산시)

- 성인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 이 교육의 대상은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지방자치단체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2 임무 (* 울산광역시)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비문해자 조사 실시
-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육성
-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에 성인 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
-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창원시, IAEC(국제교육도시연합) 아태 네트워크 결성식 개최

아태 지역의 IAEC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IAEC 아태 네트워크 결성식이 오는 6월 28일(일)부터 30일(화)까지 창원에서 열린다. IAEC 회원 34개국 392개 도시 중 아태지역 내의 회원도시는 3개국 8개 도시로 대한민국(창원시, 광주광역시, 순천시, 군산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미시), 팔레스타인(베들레헴), 호주(아델레이드)가 있다.

본 결성식에는 17개 국내·외 지자체 및 3개 국내·외 유관기관이 참가할 예정이며, IAEC 아태 네트워크 결성식 및 지역회의가 열린다. IAEC 아태 네트워크 결성식 프로그램에는 IAEC 회원도시 활동 보고를 비롯하여, IAEC 유럽 네트워크 운영 사례 발표, 네트워크 운영 방향 토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교육도시들의 사례발표 및 교육도시와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특별강좌도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_ 창원시 평생학습과 황지영 ☎055-212-2325

학회소식 _ 한국평생교육학회

1 2009 평생교육 심포지엄 개최

지역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방안을 통해 지역평생교육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평생교육 실무자들의 마인드 향상 및 전문성을 신장하여 인천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국평생교육학회와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인천광역시연수구청과의 공동주관 아래 2009년 5월 22일 ‘평생교육기관과 평생학습도시의 바람직한 역할모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에서 ‘2009 평생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도시, 16개 시·도교육청 및 평생학습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지대학교 최돈민 교수의 지역평생교육기관간 연계협력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발표와 순천향대학교 송병국 교수의 평생학습도시와 지역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관계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윤창국(사업진흥팀), 이경아(정책개발팀장)가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토론을 통해 평생교육기관과 평생학습도시의 역할 모색을 통한 바람직한 연계협력체제 구축 방안 마련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평생교육 심포지엄을 통해 평생교육 실무담당자들의 전문성 신장을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2 2009 한국평생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한국평생교육학회에서는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6개 연구 영역(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 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과 지역사회교육영역, 대학평생교육영역에 관한 실천 및 연구활동을 검토하고 그에 기반하여 미래의 유망한 연구 주제들을 발굴하기 위한 ‘2009 한국평생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한다.

- 일 시 : 2009년 6월 29일(월) ~ 30일(화)
- 장 소 : 강릉시평생학습센터
- 주 제 : 평생교육학연구 영역과 담론의 새로운 조망
- 주 관 : 한국평생교육학회
- 후 원 : 강릉시

한국평생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평생교육학회 홈페이지(<http://www.kssle.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 · 박사 학위논문 현황 _ 2009 전기

1 박사학위

- 김용남(2009) 대학생의 학업중단 요인 분석, 충남대 대학원
 박정호(2009) 한국 노인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 연구, 충남대 대학원
 조순옥(2008) OECD 순환교육의 형성 과정 연구, 중앙대 대학원
 유 선(2009)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의 관계 : 문화자본과 교사기대지각의 매개효과 분석, 창원대 대학원

2 석사학위

- 강태현(2009)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하는 교감의 지도성 행동 유형이 교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교육대학원
 김대현(2009) 사립대학 경영자의 리더십 유형과 대학환경풍토 및 대학교육효과성 간의 관계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김명구(2009) 국립대학 행정직원의 교육훈련 요구분석, 연세대 교육대학원
 김봉경(2009) 대학생의 동아리활동참여가 여가만족 및 대학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 교육대학원
 김안정(2009) 실직 고령자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구직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 교육대학원
 김영진(2009) 대학부설평생교육원 독학학위과정에 대한 수강자 의식 조사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나경희(2009) 중 ·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평생교육 현황 및 요구 조사, 계명대 교육대학원
 이명재(2009) 학교조직풍토와 교사효능감의 관계, 연세대 교육대학원.
 이미성(2009) 학교장의 지도성유형과 교원노조 활동의 강도가 교원갈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교육대학원.
 이인숙(2009)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대학 행정직원의 인식연구 : 서울소재 사립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이주성(2009)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충남대 대학원
 이지은(2009) 학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 대구교육대 교육대학원
 정영자(2009) 공공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부산대 행정대학원
 정희연(2009)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에 관한 질적연구, 아주대 교육대학원

▶ 본 학위논문현황은 지난 「평생교육진흥원 소식」 학위논문목록에서 업데이트된 현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오니, 학위논문에 대한 정보를 소식지에 소개를 원하시면 nilepr@nille.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_ 경영기획실 대외협력팀 윤윤진 · 권순영 [☎ 02-3780-9717,9719]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다양한 평생교육분야의 소식을 홍보하는 채널이 되고자 ‘전국은 평생학습중’ 섹션을 통하여 국내·외 평생교육 관련 행사소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도교육청,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도시 등 각종 평생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정보와 소식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미 개최된 평생교육 관련 행사도 게재할 계획이오니, 사진과 함께 기사를 보내주시면 선별작업을 통해 소식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매월 평생교육진흥원 소식지 발간일은 둘째주 월요일(7월호 발간-7월 13일)이며, 7월호 평생교육진흥원 소식지에 홍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6월 26일(금)까지 nilepr@nile.or.kr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_ 경영기획실 대외협력팀 윤윤진 · 권순영 [☎ 02-3780-9717,9719]

- 발간인 : 박인주(평생교육진흥원장)
- 홍보출판심의위원 : 박인중(경영기획실장, 위원장), 최일선(대외협력팀장, 간사)
권재현(전략기획팀장), 이경아(정책개발팀장), 윤창국(사업진흥팀)
심한식(제도운영팀장), 진명석(출제관리팀)
- 편집실무위원 : 경영기획실 - 김세화(전략기획팀), 엄태희(지식관리팀)
평생교육정책본부 - 이은주(정책개발팀), 남상현(사업진흥팀), 서순영(연수문해팀)
학점은행운영본부 - 이범수(제도운영팀), 민지혜(평가인정팀), 한경아(학사행정팀)
학위관리상담본부 - 이은선(고사관리팀), 김재열(출제관리팀), 황정현(학사상담팀)
- 검수 및 편집 : 최일선, 윤윤진, 권순영(경영기획실 대외협력팀)
- 발간일 : 2009. 6. 8